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2013년 12월 현재 전국 178개 문화예술회관이 회원기관으로 소속 되어 있으며, 전국 문화예술회관의 균형적인 발전 및 활성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http://www.kocaca.or.kr>
[@kocaca2012](https://twitter.com/kocaca2012)
www.facebook.com/NEWKOCACA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우수공연으로 문화예술의 나눔을 통해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지역문예회관으로 찾아가는 사업입니다.

-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지원
- 문예회관 기획프로그램지원
- 국립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지원
- 문예회관과 국립예술단체 공동제작지원
- 문화가 있는 날 특별프로그램지원

www.gorac.or.kr
[@kocaca_bangbang](https://twitter.com/kocaca_bangbang)
www.facebook.com/kocacabangbang

감동의
순간을
전해주세요!

2014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의 공연을 관람하고 후기를 남겨주시면 선정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www.gorac.or.kr) ▶ 게시판 ▶ 관람후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www.kocaca.or.kr) ▶ 커뮤니티 ▶ 감동있기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복권기금
문화나눔
www.lotteryarts.or.kr

2014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평범한 광부들의 일상으로 들어온 특별한 그림 이야기

광부화가들

The Pitmen Painters

2014년 8월 13일(수) 19:30

예천군문화회관

중학생 이상 관람가

작 리 홀 번역·연출 이상우

출연 강신일, 김승욱, 김중기, 민복기, 채국희, 송재룡, 이원호 권진란, 김용현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천군

주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The Korean Cultural & Arts Centers Association

명동예술극장

후원 복권위원회

이 팸플릿은 초대장으로 대신하며 관람은 선착순 입장입니다. 공연문의 : 650-8254

※ 본 공연은 2014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공연료의 일부를 복권기금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광부들의 일상으로 들어온 특별한 그림 이야기

너무나 멋진 작품:
웃음, 슬픔, 그리고 감동을 한 번에 불러일으킨다. - Financial Times

이 연극에는 생각과 웃음이 출렁였다. - 조선일보

정치색 · 코미디 고루 캐넌 조율의 힘...
이상우의 각색과 연출력이 돋보인다. - 한겨레신문

줄거리

“직접 해봐요!
무조건 스스로 그려보는 겁니다!”

1934년, 120만명의 광부들이 모여 사는 광산촌 애싱턴. ‘미술 감상’ 교실에 참석한 광부들이 강사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그림의 의미’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광부들과 명화를 보여주려는 강사 라이언의 의도는 처음부터 맞지 않는다. 고민 끝에 라이언은 광부들에게 직접 그림을 그려보도록 제안하고, 자신들이 그린 그림을 꺼내 보이는 것조차 부끄러워했던 광부들은 점점 자신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에 흥미를 느낀다. 점점 활기를 띄는 이들의 그림 작업실을 방문한 미술 애호가 헬렌은 올리버에게 후원을 약속하며 애싱턴을 떠나 전업 화가로서의 생활을 권유하는데...

공연소요시간 : 160분 (인터미션 15분 포함)

공연관람대상 : 중학생 이상 관람가

출연진



광부 올리버 역 | 강신일



광부 조지 역 | 김승욱



교수 라이언 역 | 김중기



광부 해리 역 | 민복기



후원자 헬렌 역 | 채국희



광부 지미 역 | 송재룡



꼬마 역 | 이원호



학생 역 | 권진란



화가 벤니콜슨 역 | 김용현

화가로서의 성취와 광부의 일상을 포기하지 않았던 꿈같은 실화를 바탕으로

〈빌리 엘리어트〉의 작가 리 홀이 그려낸 희망의 찬가

보통의 사람들이 세인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면? 그것도 모두가 한번쯤 꿈꿔 볼만한 예술인, 화가라면? 1930~40년대 영국 북부의 광산촌에서 살고 일하던 광부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점점 유명해진다. ‘애싱턴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이들의 꿈과 같은 실화는 실제 광산촌 출신인 작가 리 홀을 만나 생생한 이야기로 다시 태어났다. 이미 〈빌리 엘리어트〉를 통해 토슈즈를 신고 발레를 배웠던 광산촌 소년의 이야기로 뜨거운 감동을 전했던 작가 리 홀은 〈광부화가들〉로 ‘모두가 봐야 하는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라는 평을 받으며 이브닝 스탠다드 어워드 최고연극상, TMA 어워드 올해의 최고신작상, Journal Culture Awards 올해의 공연상 등을 수상 하였고 지금도 브로드웨이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공연되고 있다.

생생한 감동을 전하며 무대에서 만나는 위대한 명화들

〈광부화가들〉은 어쩌면 저 먼 나라의 미술관에 있는 느낌을 줄지도 모른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들과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비롯하여 유명화가들의 그림 뿐 아니라, 우드혼 탄광박물관에 실제로 수장되어 있는 ‘애싱턴 그룹’의 생동감 있는 작품들까지 객석에 앉아 감상할 수 있다. 광부들의 그림에서 그들의 인생과 그를 통한 나 자신의 모습을 찾아보길 기대한다.

‘예술은 나 자신이에요. 예술은 나 자신을 아는거예요.’라는 라이언 교수의 말처럼...